

제 1 과: 요한계시록 1 장

시작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칼빈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책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왕 되시며, 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것인가?

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기독교 개혁신앙이 제시하는 성경해석 방법으로 본문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정해진 질문들을 통하여 특정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예로부터 가르쳐져 왔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경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래의 질문들을 통하여 본문을 관찰할 것입니다: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왜 쓰여졌는가?
어디서 쓰여졌는가?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어떤 문학적 형태로 쓰여졌는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 **누가 썼는가?**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의 저자인 요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선지자로서 당시 밧모섬으로 추방 당했으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 **누구에게, 어디서 쓰여졌는가?** 요한은 이 서신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가리킵니다.
- **언제 쓰여졌는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서신이 1세기 말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그보다 더 일찍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 **왜 쓰여졌는가?**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 당시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과 제국 내의 모든 거주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야 했으며, 오직 황제를 주(主)로 시인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주(主)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신앙은 로마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 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가?**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 **어떠한 문학적 형태로 쓰여졌는가?**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묵시록’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apocalypse), 즉 ‘묵시’라는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혹은 ‘계시하다’ (따라서 요한 ‘계시’록)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본서의 사건들을 묘사하려고 등장하는 비유들이나 상징들이 다소 괴이하다는 것입니다. 뿔들과 별들, 진노의 대접, 용과 여인, 그리고 하늘의 보좌까지, 모두 요한을 통해서 그의 서신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들이나 상징들은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다수가 설명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묵시록, 즉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쓰여진 문서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각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뜻과 의미를 풀이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해독 방법이나 요령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문학적 형태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서신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서신은 분명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즉 성령님께서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를 책망하며, 또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신을 함께 공부할 때에:

1.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책에는 어느 정도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비유들, 상징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2. 요한계시록이 우리 에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비유들이나 상징들은 이 서신을 접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비로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25 년, 576 년, 1516 년, 1776 년, 1865 년, 1944 년, 혹은 2016 년의 사건들을 예언하려고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3. ‘당시’의 상황들은 언제나 좋지 않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로마제국은 서기 62 년에 있었던 파르티아인들(Parthians)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였으며, 서기 68 년에는 갈리아(Gaul)에서, 69 년에는 게르마니아(Germania)에서, 66 년부터 70 년까지는 유대(Judea)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폭정과 죽음(서기 68 년)은 수 많은 전쟁과, 또 불과 두 해 동안 세 명의 황제들이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던 대혼란의 시기를 낳았습니다. 서기 79 년에는 베수비오 화산(Mount Vesuvius)이 폭발하여 도시 폼페이(Pompeii) 전체를 쓸어버리고 인접한 지역들을 잿더미로 덮어버렸습니다. 서기 90 년도 초기에는 로마 제국 곳곳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2016 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혹시 ‘말세’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때때로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말세’에 대한 질문은 우리 세대 뿐만이 아닌 과거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에서는 어떤 장기간에 걸친 평화, 안정, 또는 풍요의 시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요한을 통해 기록된 날부터 시작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신의 서론

요한계시록은 귀에 ‘들려지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책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한 명씩 순서대로 소리 내어 읽어나갈 것입니다. (만약 소리 내어 읽고 싶지 않다면 “pass” 하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 장 1-3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들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主)시며, 그가 이미 승리하였고, 이기고 있으며, 또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 장 9-20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톰 라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1 세기의 공상이 만들어진 동떨어진 인물일 뿐이다. 오늘날의 일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다. 요한은 이 가운데 두 번째에 동의하겠지만, 그는 따라서 예수님이 대하기 쉬운 인물, 단지 우리에게 내적 행복감을 주는 분이라고는 상상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끌어안지 못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7).”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예수님을 말 그대로 ‘끌어 안으려고’ 하는 자세가 21 세기의 예배, 신앙 또는 QT 와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몇몇 성경공부 프로그램들 안에 어떻게 조장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2. 어떠한 해결책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까?